

## 1. 성경연대기와 역사의 주관자<sup>1)</sup>

세계의 모든 종교는 역사적인 비평을 견디어 낼 수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철학에 불과하다. 모든 신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신앙이 아니면 인간이 세운 신앙을 배워왔다. 버트란드 러셀 (Bertrand Russell)은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자유로운 탐구가 그 믿음을 지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이 거의 모든 종교에 공통적이고 모든 국가 교육의 체계에 주입된 것이다. 그 결과는 젊은이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다른 광신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대해 광적인 적의를 품고, 또한 모든 열광주의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더욱 적의에 차게 된다는 것이다. 증거 위에 신념을 두고 증거가 보증하는 만큼의 확실성만 가지는 습관이 일반화된다면, 세계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병이 치료될 것이다.

러셀은 모든 신자들에게 정당한 도전을 제안하였다. 인간은 기독교에 의문을 제기해야 하거나, 또는 기독교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종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많은 무신론의 공산주의자나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이 대담하게 이러한 종류의 도전을 세계의 신자들, 특히 자신들의 종교에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신자들에게 제기한다.

이 나라는 버트란드 러셀의 도전 이래로 점차 반 성경적인 교리에 기울어져왔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진전된 진화론과 자유분방한 사랑, 그리고 낙태 등을 기쁘게 보았을 것이다. 그는 미국의 주요 대학에서 교수직을 거부당했지만, 이제는 같은 대학들이 그를 받아들이고 보수적인 학자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유사한 태도의 변화가 미션스쿨과 같은 종교성을 가진 학교에서 일어났다. 오늘날 미국의 주요 신학교들 중에서 구약 성경을 건전하게 존중하는 곳은 아주 드물다. 아직도 성경을 믿는다고 흉내 내는 자들 중에 성경의 첫 11장을 문자적인 역사의 사실로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들은 확실히 우리나라의 교육에 영향을 미쳤고, 유신론자들은 그러한 문제를 무시했고, 또한 신앙의 타당성을 제시할 필요를 무시해왔다.

교회는 세속적인 기관들을 따라 냉담한 입장에서 러셀 씨와 조화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러셀과 교제하는 것이 쉽다고 여길 것이

---

1) 양승원, [성경과학파노라마], 성경과학연구소 2020, 13장 참고

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신화로 축소되어, 오늘날에 더 적용하기 좋은 신화로 대체되고 있는 중이다. 긴 이야기를 단축시키려고, 성경이 사회철학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고, 종교는 사회봉사의 명분을 가지려 하고, 하나님은 알 수도 없고 전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보편적인 '힘'으로 축소되었다.

누군가 러셀의 도전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때이다. 기독교 신앙은 그 거룩한 책을 자유로운 탐구에 내맡길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고하시고, 또한 그것들이 일어날 날짜와 때를 알려주신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다니엘서는 그러한 예고적인 진술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그 중에 우리 시대에 성취된 것들이 있다. 그것이 기독교가 참된 종교이고 참되신 하나님이 라는 주장에 대한 가장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증거이다. 이 연구를 통해 성서의 진실함에 대한 증거에 마음을 열어 자유로운 탐구라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성경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바라본다.)

## 1) 역사의 주관자, 여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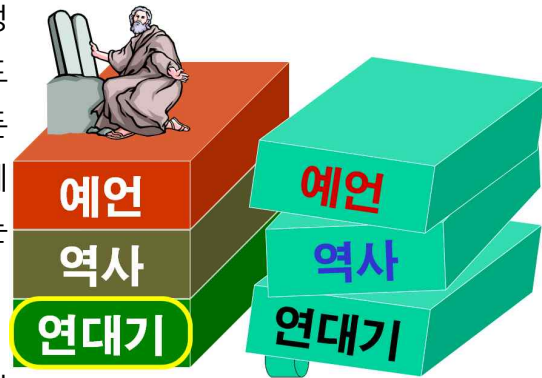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증거는 무엇인가? 즉, 히브리인들의 민족 신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증거가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21~24절의 말씀처럼 장차당할 일(예언)을 말씀을 통해 주시고 그 예언이 역사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연대기 연구(시간을 측정하고 사건발생시간을 밝히는 과학)**를 통하여 확인하여 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예언의 말씀이 역사가운데 정확히 일치한다면 야훼 하나님이 참된 신(神)이라는 것을 증거 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다.

“21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22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의**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23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 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4 과연 너희는 아무 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사41:21~24)

여기서 예언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을 미리 진술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날과 그 사건에 대한 징표, 장소와 인물 등이 역사가운데 복합적으로 정확히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참된 예언이라고 말한다. 역사가

2) 유진 폴스티히, [다니엘서와 역사의 조화], 성경과학연구소 2020, 서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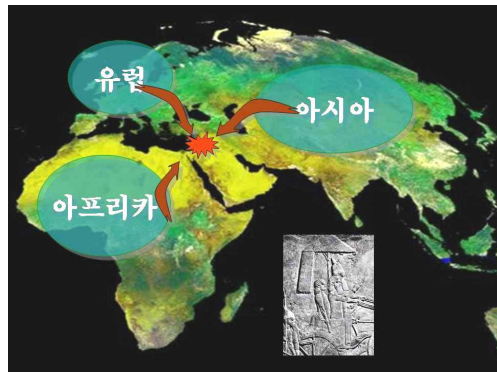
운데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역사 가운데 정확히 이루어진 예언을 하고 있는 종교는 드물다. 게다가 이 세상의 시작과 역사의 모든 시간들을 정확히 진술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신(神)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을 역대의 연대를 통하여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고, 역사가운데 이루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수룬'이라는 사랑스런 칭호를 쓰면서(신32:15) 이스라엘을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시며, 그들의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깊이 새겨주고자 했던 것이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신32:7)

어쩌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징조이다. 역사를 보면 가나안 지방은 수많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요충지가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라를 갖고 있는 것은 기적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운데 예언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복음을 주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 나라를 선택하시어 사용하고 계신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예언대로 역사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한 증거이다.



## 2) 성경연대기 연구의 중요성

이러한 점에서 과학적 연구방법에 의한 성경연대기의 연구는 성경의 사건들

에 대한 정확한 연대를 찾아내어 **성경의 역사성을 확인(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徑輪, 일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 #. 성경연대기 연구의 중요성:

- 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Messiah]이심의 역사적으로 확인한다.
- 나. 올바른 성경적 역사관의 회복할 수 있다.
- 다. 예언과 역사적 성취를 통한 성경말씀의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 라.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다.

### 3) 연대기에 대한 과학적 연구방법들

연대기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천문학적인 기록인 일식, 월식, 행성들의 대상합(Conjugation) 등과 같은 특징적 사건들을 살펴보는 것과 역법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역사기록에 대한 접근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연대의 추적이 가능하다.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처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도 성경의 사건들에 대한 **징조(sign)**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35-36절 말씀처럼 변하지 않는 규례, 법도로서 이스라엘이 역사가운데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창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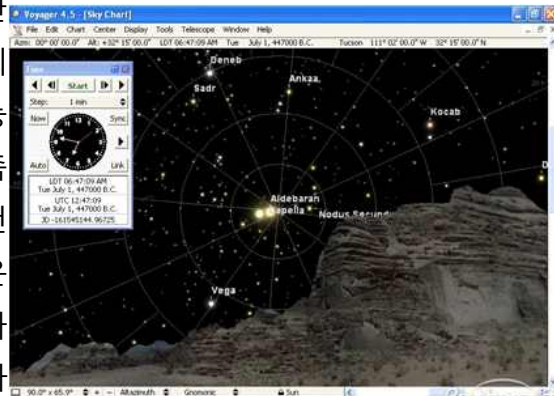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31:35-36)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이르러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의 규칙(degree)과 규례를 주시면서 이 법도(규칙)가 폐하여지면 이스라엘도 끊어질 것을 말씀하신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행성들의 법도(규례)가 변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역사가운데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해 달 별들의 규칙이 있었기에

그 사건들의 날짜를 규명할 수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역사를 세워주는 도구로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 (1) 천문학과 컴퓨터(astronomy & computer)

천체들의 운행은 가장 믿을 만한 시간측정방법이다. 해와 달과 행성(별)들의 운행궤도에 관하여 단시간 내에 처리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한 정확한 천문학적 관측 자료들과 역사 속에 기록된 천문학적 사건들(일식, 월식, 금성주기, 대상합, 혜성, 운석, 행성들의 배열)을 연구하여 역사적 사건들의 절대연대 (현재로부터)가 추적 가능하다.



### (2) 역법과 컴퓨터(calender & computer)

어느 한 날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동시에 표기된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역법의 날짜를 알고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하여 현재로부터의 절대연대를 단시간 내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알아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히브리 성경사본 중에 맛소라 본문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또한 70인역 성경과 탈무드의 기록들도 비교하여 참고 하겠지만 이들의 연대기의 해석부분은 약간 다르다는 것들을 이야기 할 것이다. [유대고대사]와 [유대전쟁사] 등을 저술한 최고의 유대역사가로 알려진 요세푸스의 기록은 성경연대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CalendarHome.com Login/Register

Home Calendar Store Print a calendar Free Links Encyclopedia Calculate Misc. Members Only

ENHANCED BY Google

Ads by Google: [Excel Calendar](#) 달력 [Lunar Calendar](#)

### Convert a date

Today < Century > < Year > < Month > < Day >

Gregorian Date: -5 May 14 Normal year Time: 00:00:00 Weekday: Sunday

Julian Date:	-6	May	16	Normal year	Sunday
Julian day:	1719366.5 / Modified Julian Day: -680634				
Hebrew Date:	3755	Iyyar	28	Common regular (354 days)	Hebrew month: אייר
Islamic Date:	-646	Rajab	26	Leap year	Weekday: yawm al-'ahad
Persian Date:	-627	Ordibehesht	23	Leap year	Weekday: Yekshanbeh
Kurdish Date:	-627	Golan	23	Leap year	Weekday: Yekshanbeh
Afghan Date:	-627	Sawr	23	Leap year	Weekday: Yekshanbeh

### (3) 성경연대기와 유진 폴스티히 연구자료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도 여러 역사문헌들을 통하여 같은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이상의 달력으로 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절대연대를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특별히 미국의 성경연대기 연구소[Chronology-History Research Institute (CHRI), 故 유진 폴스티히 소장]에서 수많은 역사자료와 천문학프로그램, 역법과 달력변환 프로그램들을 일일이 조사하고 연구하여 몇 권의 책으로 정리되어 있다.<sup>3)</sup> 지금은 고인(故人)이 되신 유진 폴스티히 선생님은 1995년 한국의 한동대학교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계기로 153실터교회와 성경과학연구소(153실터공동체 대표 김명현 박사)<sup>4)</sup>에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연구하여 [과학과 예언], [다니엘 연대기], [성경 연대기와 6천년역사]...라는 강의를 통하여 일부 내용을 전하고 있다. 또한 한글 번역본으로 1차 번역본이 가제본형태로 출판되어 있으며(2019년) 오차나 오류들을 수정하여 정식으로 출판 및 대중들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현재 스터디 및 번역 모임(2020년 6월 시작)을 진행 중에 있다.

3) E.W.Faulstich, [Bible Chronology and The Scientific Method], Chronology books 1990,

4) 성경과학연구소 [www.biblescience.org](http://www.biblescience.org)

